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종교란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로 이제 첫 단추를 꿰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제가 종교학

전공자입니다만 앞으로 19개의 강연 동안에 소위 이제 비교
종교학적 관점에서 종교의 지성적 이해 혹은 비판적 이해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쪽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이 종교학
혹은 이제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과가 어떤 분과인지 그리고 이 학문 분과 왜 종교의
이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인 강연들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일단
그 종교학은 비교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라고 하는 게 어쨌든 내 종교, 한 종교만을
알고 있을 때에는 비교가 이제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동서양이 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서양 사람들이
동양 종교, 불교를 위시한 여러 동양 종교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예컨대,
유신론적인 경향이 전혀 없는 불교 전통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 윤리적인 측면들을 강조하는 대단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유교 종교 전통 같은 것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 유신론적이고

혹은 신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 종교와 굉장히 큰 차이를
발견하게 되면서 도대체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아주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호기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종교학은 기본적으로 이질적인

종교들이 만나면서 비교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종교학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근대 이후에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종교 전통은 종교 창시자가

뭐 예수, 붓다 혹은 노자, 장자처럼 아주 오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비교 종교학은 근대 이후에

지성적 학문 분과로써 종교 현상의 이해를 통해서 더 깊게
인간과 존재 자체를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대단히 근대 이후에 오래되지 않은 현상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종교학에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 분과로 나뉩니다. 우선 나누기 전에 보통 이제
종교학을 전공한다고 하면 어떤 종교를 믿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건 이제 종교학하고 신학이라고 하는 분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질문을 보여줍니다. 즉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지성적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믿는 신앙의 교리, 종교의

교리를 더 깊게 이해하고 그것으로써 자신의 종교 활동
혹은 신앙심을 더 깊게 만드는 활동들이라고 표현하면

이 종교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신앙을 깊게 한다기보다는
종교 현상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어쨌든 종교 현상을 통해서

인간 그 자체, 혹은 존재 그 자체를 더 잘 이해하려는
인문학의 한 분과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종교학에는 크게 이제 두 캠프. 하나는 이제
종교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 종교를,

제도 종교를 연구하는 분과로 나뉩니다. 이론 분과는 종교
심리학이라든지 종교 사회학이라든지 종교 철학과 같은

분야로 소위 이제 이론, 학문의 이론들을 가지고 종교 현상,
제도 종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통 종교 그 자체 예컨대, 불교만을 평생 연구하는 학자,
혹은 기독교만을 평생 연구하는 학자. 물론 이제 신학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두 캠프로 나뉘진다고
하는 거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종교 심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교학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종교학이 있기 전에는 제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질문들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일단 종교학이 처음에
제시한 물음들은 종교가 어떻게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그 종교의 기원에 대한 물음들을 많이 던졌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래서 그 기원으로써 예컨대, 인간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종교를 만들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종교의 기원이었다라고 하는 설명부터

시작을 해서 예컨대,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 천재지변, 자연의
거대한 힘들을 의인화시킨 거. 예컨대, 바람의 신, 바다의 신,

산의 신, 하늘의 신처럼 자연의 힘들을 의인화시킨 게
신 개념의 출발이고 이게 곧 인간의 본질적인 공포를

통합시키고 자기 삶에 흡수하게 되는 그런 기제로써 종교가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질문은 답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정말로 그거를 포착하고

그런 방식으로 종교를 만들어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은 종교학이 이제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종교의 기원이라는 질문은 종교의 의미와 기능이라고 하는
질문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의 의미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왜 종교 생활을 하는가, 그리고 종교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가에 관한 얘기들이죠. 제가 저번

시간에 종교라고 하는 어쨌든 인간이 살아가면서 던질 수밖에
없는 궁극적 질문 예컨대, 왜 태어났는지, 왜 죽는지, 죽음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이 궁극적 질문에 대한 해답
체계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 자체가 결국은

인간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만들고 그 발견된 의미에

입각해서 행동들을 취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삶을 더욱더 용기 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기능 혹은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컨대, 이제 종교학이 더 분명한 형태로 밝힌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와 유사하게 소위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윤리적인 규범, 행동 규범을 공동체에 제시함으로써 이 공동체 자체를 존속하고 유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종교학이 종교의 의미와 기능을 밝히는 과정에서 도달한

또 다른 결론 중의 하나죠. 그리고 또 종교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컨대, 여러 종교가 발전시켜온 신 개념들의

다양한 형태들에 대해서도 비교의 관점에서 연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단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종교 전통별로 그리고 그 종교 전통 내부에서도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한 신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런 종교, 유일신론 종교에서는 신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 단일한 신 개념 자체가 종교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앞으로

다루게 될 힌두교만 하더라도 이 유일신론 개념을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유일신론이 다양한 형태로 인간들에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종교 체계입니다. 심지어는 신 개념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종교 특히 이제 불교나 유교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게 종교라는 범주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보면 이 신 개념

자체가 종교를 성립시키는 데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종교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통찰들이나 이런 것들도

종교학의 비교 관점에서 밝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식의 질문이라고 하면 예컨대, 이제

신 개념 자체의 기원 혹은 신 개념의 유형에 대한 얘기들도 종교학에서 대단히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합니다. 예컨대,

희랍의 크세노 파네스 같은 사람은 인간에게는 인간적 모습을 가진 신이 있다고 하면 만약 말이나 소가 지성적인 존재라고

하면 당연히 신을 말이나 소의 모양으로 만들어냈을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는

현대 신학자 중의 한 사람은 포이어바흐입니다. 예컨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 개념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에게

가지는 불완전함의 개념들을 바깥에 투사시켜서 그 완전한 이상적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 이상적인 존재에 대해서

신앙하는 행동이 바로 종교라고 하는 이게 이제 투사라는 개념인데요. 이 투사라는 심리적 개념을 활용해서 소위

종교라고 하는 현상들을 이해하겠더라고요 하는 주장을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이제

종교학에서 바라보면 신 개념 자체도 단일한 게 아니고
그 단일한 신 개념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또 대단히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지성적인 활동들에 입각해서 지성, 지적인 능력이

확장되고 발전될수록 신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도 점점 폭넓어진다고 하는 얘기도 종교학 자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어쨌든 종교학 전반에 관한
얘기하고 그 종교학 자체가 신학과 달리 종교의 특정한

측면들을 그러니까 지성적인 활동을 통해서 더 깊게
합리적으로 혹은 또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시도이자 그다음에 동서양의 문명 혹은 동서양의
종교가 만나는 과정에서 대단히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큰 시사점 혹은 큰 통찰을 줄 수 있는 학문 분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요, 종교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과가 이제 서양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시작돼서

동양으로 한국 사회를 포함해서 여러 동양 국가로 이렇게
전파가 됐는데 동양 사회에서는 소위 종교를 지성적으로 혹은

학문의 한 분과로써 연구한다라고 하는 게 전통 속에서
그렇게 낯선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믿음 혹은 신앙 혹은 수행의 대상이지 이거를 인간이 지성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양에서는 흔하지 않은 관점이어서 이제 어떤 종교학자가 동양에서 혹은 한국 사회에서 오해를 많이

받게 되는 그러니까 종교학을 한다고 하면 어떤 종교를 믿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혹은 종교를 왜 신앙하지 왜 그걸

공부를 해?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여하튼 종교학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교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인간과 존재, 나아가서는 신 개념에 이르기까지 더 깊게 이해하게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학문 분과다라고

하는 말씀을 종교학자로서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